

# ISSUE & FOCUS

Newsletter 2016-9(5)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곽 홍 석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원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올해 초만 하더라도 먹는 방송, 일명 먹방이 열풍이었다. 스타 요리사가 생겼고, 요리와는 관련이 없는 연예인들도 이런 종류의 프로에 출연하면서 어느 방송사나 먹방이 황금시간대에 편성됐다. 20년 전 일본 방송가와 비슷한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먹방의 유행이 그 사회가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증거로 분석한다. 그 근거로는 첫째, 기업이 언론에 대규모 후원이나 광고를 자제하면서 방송국 입장에서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려워지는데, 먹방은 이런 환경에 좋은 소재라는 것이다. 출연자 몇 명이 음식을 하며 토크쇼를 진행하는 형식이기에 제작비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저성장 시대에 시청자가 선호하는 방송 소재이다. 1인 가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청자들은 적적함을 해소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TV를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집중하지 않고 시청하면서 요리할 때 나는 원초적인 소리에 시청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많은 분석 자료는 물론, 언론과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사회가 바야흐로 저성장의 시대라고 말한다. 2~3%대 낮은 성장률이 새로운 표준,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를 만들었다. 낮은 성장률은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 조정을 하고 정부는 복지정책 지출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기업이 인력 조정은 실업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며 어려워진 가계가 내수에 가장 중요한 소비를 줄여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지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층은 특히 심각한 상황에 노출된다. 청년들이 가장 고통 받는 문제는 당연히 고용이며, 유럽에서는 '700유로 세대', 우리나라에서는 '88만원세대', 'N포 세대'란 말이 그 심각성을 잘 드러낸다. 2015년 기준 한국 대학생들의 평균 휴학기간이 28개월, 20대 청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들은 고용문제로 병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문제이다.

금년 취업자의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체감 고용 상태를 반영하는 광의의 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는 청년층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내년에도 취업자 수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인력 수요 둔화로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지난 20년간 일본의 청년실업사례와 매우 유사한데, 이미 청년 실업문제를 겪은 일본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청년고용의 파트타임 고용, 비정규직화 현상 지속, 둘째,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취업자들은 시간이 가도 동일한 파트 혹은 비정규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급속한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실업률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과거의 성장세를 보이거나 혹은 동일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워 청년층의 고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인생의 푸르고 맑은 시절이라는 청년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다.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같이 고통 받았던 사람으로서 나의 경험과 제언을 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류심사 - 필기시험 - 1·2차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데 각각의 단계를 어떻게 준비할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며 기업의 인재채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업의 변화는 첫째, 최고의 인재가 아닌 현업에 적합한 인재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기존의 최고인재가 소위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현재는 문제해결능력과 상황적응력, 열정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작게는 부서가 어떤 능력과 경험을 요구하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직 선호이다. 요즘의 기업들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의문을 제기한다. 때문에 휴학까지 해가며 보다

많은 스펙을 채우는데 몰두하기보다 경력을 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본인이 기업에 적합한 지원자라는 것을 자소서에서 어필 해야겠다.

셋째, 필기시험의 경우 전공시험일 때는 대학 때 전공공부보다 좀 더 심화된 공부가 필요하다. 적성검사일 경우 모든 문제를 차례대로 푼다는 생각을 버리고 확실히 아는 것만 빨리 풀어 최대한 많은 답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IQ 테스트와 같은 요령이다.

넷째, 면접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 뛰어난 지원생들이 면접에서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너무 절실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면접관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태도로 마치 구걸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한다.

2014년, 보낸 이력서가 몇 장인지도 잊혀져가고, 집에 들어가기 미안해질 만큼 취업준비에 지친 어느 평일에 여의도를 놀러갔었다. 이렇게 높고 많은 건물들 중에 내가 일할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의도 직장인들을 보면서 나도 직장은 꼭 여의도로 다니겠다고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로 150여개의 자소서를 보냈지만 수많은 낙방을 했고 주위에선 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내게 많은 질타와 우려를 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큰 고통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는 달리 취업시장에서는 날 원하지 않아 ‘귀하의 우수한 능력은 인정하나 이번에는 기회가 닿지 않아..’로 이어지는 낙방소식을 계속해서 접하다보니 막연하게 미래에 대해 낙관하던 나도 걱정이 쌓여갔다. 계속해서 내면으로만 침전하던 어느 날, 퇴근하신 아버지는 “취업은 생각하지 못할 때 우습게 된다.”는 말씀과 함께 햄버거를 주셨다. 직장으로부터 아들 준다고 한 손에 햄버거를 달랑달랑 들고 오셨을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 날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되뇌이며 다시 자소서를 쓰고 시험공부를 했었다.

오늘도 탈락 소식을 듣고 한탄하며 좌절하고 있을 이 시대의 청년에게 다시 말하겠다. 취업은 우습게 된다. 그러니 사회구조가 잘못 됐다, 나라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식의 소리만 하지 말고, 게임 끄길 바란다. 친구들끼리 술 마시며 서로 힘듦을 확인하며 자기위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숨겨져 있는 정보들이 많다.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준비하면 어느새 본인의 계절이 올테니 힘들어도 자소서에 소절도 쓰고, 수능 공부할 때만큼 공부도 원 없이 하길 바란다. 그리고 막연한 자신감이라도 가져라. 모든 시험은 합격하고 돌아보면 참 쉬운 법이다. 이 힘든 시기를 추억하는 날이 올 것이니 모두 힘내시길!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